

국립국어원 2009-04-02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155-01



이런 말에 그런 뜻이?

-차별과 편견을 낳는 말들



국립국어원



한국어문표별기자협회

책을 펴내면서

세상에는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마련이다.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앞이 보이는 사람과 안 보이는 사람, 부모 모두 한국인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들은 모두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각자 소중한 인격을 지녔고, 남에게 차별받지 않으면서 살아갈 권리를 갖는다. 사람들이 누구나 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회는 건전하고 활력이 넘친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 완전한 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선호 직업과 기피 직업이 동일한 가치로 인식되지 않는다. 또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위상이 다르고, 신체적으로도 장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구별된다.

그러한 차별적 관념이 겉으로 표출되면 갈등을 빚게 된다. 우리는 때로 가난한 사람을 ‘가난뱅이’로, 농촌 사람을 ‘촌뜨기’로 표현하고, 방송 드라마에서는 ‘파출부 일이나 한다’라는 대사가 나오기도 한다. 이는 해당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다.

이와 달리 차별성이 강한 말도 있다. ‘장수’와 ‘상인’, ‘수위’와 ‘경비원’, ‘불구자’와 ‘장애인’ 등의 용어를 비교할 때, 앞말은 뒷말보다 격이 낮게

느껴진다. 말 자체에 차별적 의미가 담긴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해당자를 차별하는 것처럼 보인다. 당사자가 이런 말을 듣는다면 서운해하거나 혹은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이 밖에도 과장된 표현, 비객관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원활한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차별적이고 비객관적인 표현이 널리 쓰이는 사회는 건전성을 잃기 쉽다.

한 사회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그 사회 구성원의 의식과 사고를 반영한다. 모두가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남을 생각하고 불평등한 관계에 놓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평등한 사회, 차별 없는 사회는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다.

국립국어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표현 가운데 뜻하지 않게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쓰지 않도록 하는 사업을 펼쳐 왔다. 이 책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그간 쌓아온 주제별 연구 결과 가운데 실생활에 적용할 만한 것들을 모아 쉽게 풀어 쓴 것이다.

이 책이 우리 사회 내의 소수자 또는 약자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차별적이고 비객관적인 언어 표현을 개선하여 사회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통합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2009. 12. 3.

국립국어원 원장 권 재 일

차 례

말이 차별을 낳는다

- 서운한 말은 천 리 밖에서도 들린다
- 나더러 파출부 하라는 소리야?
- 직업 이름이 왜 자꾸 바뀔까
- 채소 장수가 어때서요
- 상인과 잡상인
- 회동을 갖고 만찬을 베푸는 사람들

말이 더 아프게 한다

- 편견이 문제다
- 이런 표현 이렇게
- 꼬끼리가 괴로워
- 능력의 차이는 없다

여자와 남자는 평등하다

- 남편 따라 죽으라는 말인지
- 복부인과 얼굴마담
- '처녀작'이라고?
- '여기자' 딱지를 뗐더니 이젠 '여류 작가'래

낮은 사람 없고, 낮은 지역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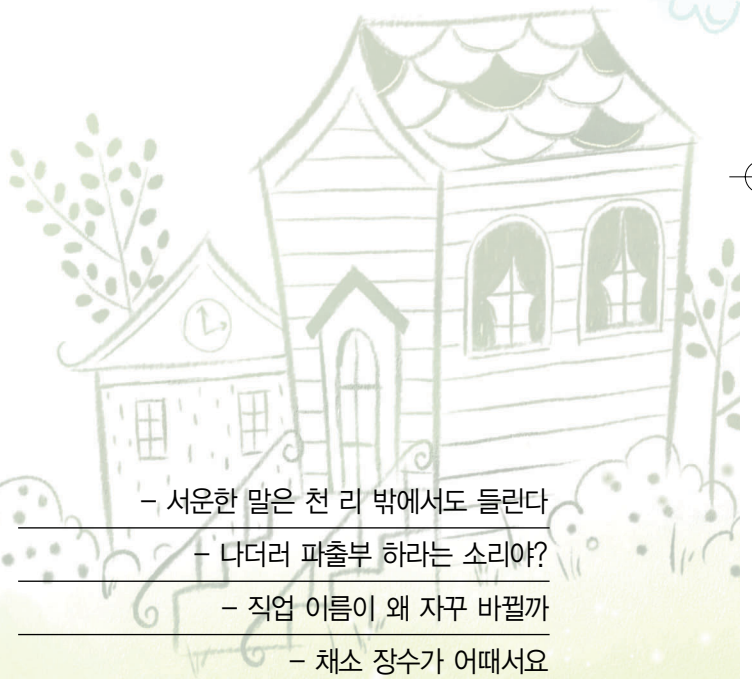
- 서울, 서울, 서울
- 이려면 '지방'이 억울해
- 시골, 촌사람, 촌뜨기
- 살색에서 살구색으로
- 우리는 친구
- 절반만 한국인?
- 재일동포, 재미동포, 조선족?

이렇게 말해도 되나

- 말이 예뻐야지요
- 노인보다는 어르신
- 강남에 사는 명품남 씨
- 우리 것은 헛것, 서양 것은 새것?
- 험악하게 말해 봐?



말이 차별을 낳는다



- 서운한 말은 천 리 밖에서도 들린다

- 나더러 파출부 하라는 소리야?

- 직업 이름이 왜 자꾸 바뀔까

- 채소 장수가 어때서요

- 상인과 잡상인

- 회동을 갖고 만찬을 베푸는 사람들

서운한 말은 천 리 밖에서도 들린다

‘눈’은 에스키모인에게 세 가지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한다. 내리는 눈, 쌓인 눈, 집을 짓는 데 쓰이는 눈이다. 그중 세 번째 눈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 대신 우리에게 다른 눈이 있다. 설렘의 눈이다.

눈은 연인에게는 낭만의 대상이지만 군인에게는 즉시 치워야 하는 고역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누군가 ‘눈이 왔다’고 외쳤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미소를 지을 수도 있고, 찡그릴 수도 있다.

‘눈’이라는 일반 사물을 두고 말해도 이처럼 받는 느낌이 제각각인데 사람에 관해 말을 할 때는 얼마나 다양하고 예민한 반응을 보일까.

우리는 ‘에스키모’라는 말을 들으면 눈 많은 북극 지방에서 이글루라는 얼음집을 짓고 사는 민족 정도로 여긴다. 그런데 그들이 사는 캐나다에서는 ‘에스키모’라 하지 않고 ‘이누이트’라고 부른다. 많은 이누이트들은 자신들이 ‘에스키모’라고 불리는 것을 모욕으로 여긴다고 한다. 그 말에 ‘날고기를 먹는 야만인’이란 뜻이 담겨 있어 자신들을 경멸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뉴질랜드로 여행 간 이누이트인이 그곳 상점에서 ‘에스키모’라는 이름의 상품이 진열된 것을 발견하고 인종차별적인 제품이라고 항의한 적도 있다.

듣는 사람이 서운해할 말은 우리 사회에도 수없이 많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알면서 하기도 하고, 무의식중에 하기도 한다.

“충청도의 자존심이 살아나고 있다. ‘멍청도’와 ‘햇바지’를 벗어던졌다는 목소리가 전국에서 들리고 있다.”

“부산이 고향인 그를 제외한 다른 경영진은 모두 ‘보리문둥이’라는 점도 특이하다.”

첫 번째 인용문은 충청도 출신 정치인이 국회의원 선거 유세에서 한 말이고, 두 번째 인용문은 경상도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실린 글이다. 멍청도, 햇바지, 보리문둥이라는 표현에 비하하는 의미가 담겼지만 자신들을 가리켜 표현한 말이므로 듣기가 그리 거북하지는 않다. 하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처럼 말했다면 해당 지역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할 것이다.

말이 차별성을 드러내는 정도는 주변 상황이 결정한다. 누가 그 말을 했는지, 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다. 본래 비하적 의미, 또는 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면 더욱더 가려 쓸 필요가 있다.

에스키모인이 일본 신문을 보는 일은 거의 없겠지만, 일본의 언론들은 ‘에스키모’라는 말을 가려 쓰도록 권하고 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사용하는 말은 전파력이 크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이다. 서운한 말은 천 리 밖에서도 들린다.

나더러 파출부 하라는 소리야?

영희네 식구는 얼마 전 저녁을 먹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일제히 동작을 멈추었다. 서로 바라보지도 못한 채, 눈을 아래로 깔고 한동안 그대로 있었다. 잠시 후 식사는 계속되었지만, 다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내내 영희네 집에는 적막감이 흘렀다.

“나더러 파출부 하라는 소리야?”

식사하면서 텔레비전을 켜 놓은 게 문제였다. 함께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 속 부부가 돈 문제로 다투면서 파출부 얘기를 꺼낸 것이다.

그날따라 영희 엄마는 아이들에게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영희 엄마는 낮에 짬짬이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 준다. 한때 그 직업을 파출부라고 했는데, 요즘은 가사도우미로 바뀌었다. 아닌 게 아니라 영희 엄마는 파출부라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진다. 가사도우미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래도 조금 낫다. 하지만 직업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누가 무슨 일 하느냐고 물으면 그냥 남의 집 일을 돕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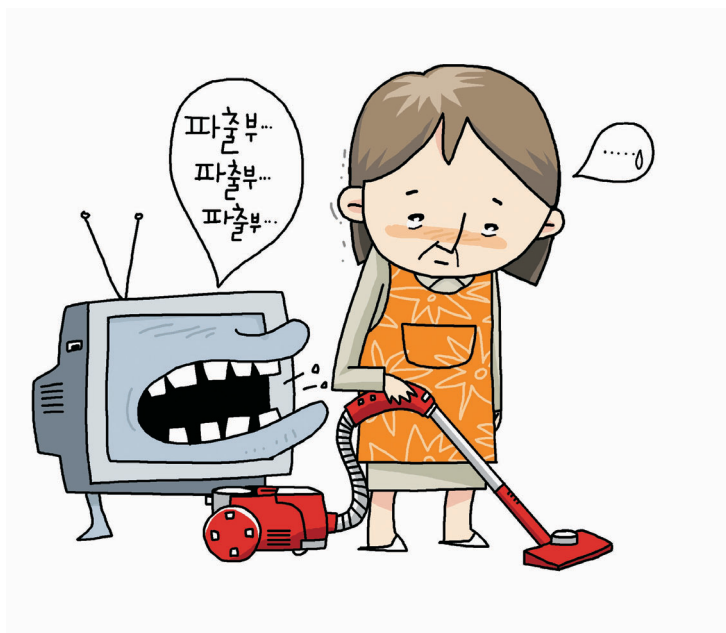
“영희야, 철수야 미안하다. 엄마는 너희들 학비를 마련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내가 하는 일을 안 좋게 말하니까 창피하다. 너희들도 엄마가 하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겠구나.”

영희는 평소 엄마가 하는 일이 보람 있는 것이라고 여겨 왔다.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엄마가 고맙기만 했다. 그런데 그날 텔레비전에서 나온 말을 듣고는 다들 의기소침해진 것이다.

‘파출부가 어때서. 나는 파출부해서 돈 버는 우리 엄마가 자랑스러운데.’

영희는 그날 내내 속이 상했다. 시청자들 중에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텔레비전의 드라마가 싫어졌다. 하긴, 언젠가는 텔레비전에서 공사판 막노동꾼이나 노가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아빠가 과민반응을 보였던 것도 기억난다.

그날 이후로 영희네 식구는 함께 모인 자리에서는 텔레비전 켜는 것이 조심스럽다. 파출부라는 말도 듣기 거북하지만 가정부니, 식모니 하는 말까지 나오지 않을까 걱정해서다.





직업 이름이 왜 자꾸 바뀔까

1960년대 온 국민이 굶주림에 허덕일 때, 일자리를 찾아 독일로 건너간 여성들이 있었다. 이른바 파독 간호부. 간호부는 일제강점기 때 생긴 말이다. 광복 이후에 간호원으로 바뀌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바뀐 말이 익숙하지 않아 파독 간호부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그 후 간호부는 간호원이란 이름으로 불리다가 1987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간호사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다. 간호부에서 간호원으로, 다시 간호사로 바뀐 것이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부(婦)’는 여성을 뜻한다. ‘주부, 과부, 촌부’ 등의 표현에서 보듯 평범하거나 지위가 낮은 여성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한다. 따라서 간호부도 좋은 이미지를 갖지는 못하며, 더욱이 직업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용어는 아니다. ‘부’가 ‘원(員)’으로 바뀐 것은 이런 이유 외에도 직업이 여성에 국한된다는 이미지를 극복 하자는 뜻이 담겨 있었다.

그 ‘원’이 다시 ‘사(師)’로 바뀐 것은 전문성이 인정되는 직업명을 부여하자는 취지이다. 또 ‘사람의 모범이 되어 남을 이끌거나 돌보는 사람, 곧 선생’의 뜻을 지닌 말로 격을 높이려는 뜻도 담겼다. 사람의 질병을 다루는 사람이므로 그 직업의 숭고한 자격을 바로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됨으로써 환자나 보호자는 자연스럽게 ‘간호사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직업의 이름이 자주 바뀌자 사람들은 왜 언어의 혼란을 초래하느냐고 의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직업에 담긴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이미지까지 훼손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자면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일반인들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간호사의 경우, 용어가 바뀔 당시에는 다소 혼란이 있었지만, 시일이 지난 지금은 그 용어가 익숙해져서 사용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다.

택시를 모는 운전수가 운전사로 바뀐 것도 ‘수(手)’와 ‘사(士)’가 갖는 뉘앙스 차이를 고려한 것이다. 또 수위를 경비원이나 관리원으로 바꾼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우편집배원(우체부), 집달관(집달리), 환경미화원(청소부), 구두미화원(구두닦이), 가두신문판매원(신문팔이) 등은 법률에서도 용어를 바꾼 예다.

채소 장수가 어때서요



“너 매일 그렇게 놀기만 하면, 나중에 채소 장수밖에 안 돼.”

“채소 장수가 뭐 어때서요. 솔이네는 채소 장사해서 돈도 많이 벌었던데요.”

슬기 엄마와 슬기가 이런 말로 치고받는다. 슬기 엄마는 채소 장수가 천한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슬기는 다르다. 일에서 보람을 얻으면 되지 직업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것이다. 세대에 따라 직업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이다.

이 세상엔 수많은 직업이 있다. 의사, 판사, 은행원, 공무원, 교사, 자영업자, 경비원, 환경미화원, 가사도우미….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으면 세상은 혼란에 빠진다. 직업은 곧 사회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직업엔 귀천이 없다고 하는데, 이는 어느 직업이든 나름의 존재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하지만 사람마다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다. 그 선호도는 대개 희소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예컨대 의사는 수요보다 공급이 적기 때문에 희소가치가 있고, 따라서 의사가 되려는 사람이 많다.

만약 이 사회에 의사는 넘치는데 아픈 사람이 별로 없다면 의사라는 직업은

천덕꾸러기가 될 것이다. 반대로 아파트에서 경비를 설 사람은 없고, 주민들은 다들 도둑을 무서워한다면 경비라는 직업은 매우 가치 있고, 대접 받는 직업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직업 자체엔 귀천이 없지만, 사회의 선호도에 의해 귀천 의식이 생기게 된다.

특정 직업의 선호도가 낮다고 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주눅들 이유는 없다. 김밥 장사를 해서 번 돈을 사회에 기부하는 사람도 있고, 자장면 배달부가 ‘번개 배달’로 소문이 나서 텔레비전에 출연하기도 한다. 그들의 성공 이야기를 들으면 직업에 대한 귀천 의식은 먼 옛날의 이야기로 들린다.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 누구든 대접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엔 직업에 대한 귀천 의식이 강하다.

“그래, 너는 채소 장사나 해 먹어라.”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면, 그는 채소 장수에 대한 가치를 얕잡아 본 것이다. 물론 채소 장수가 그리 선호되는 직업은 아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자. 채소 장수는 하루하루를 이어 가는 삶이 고단하지만, 자기 나름의 희망을 안고 산다. 채소를 팔아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공부시킨다. 자식이 훌륭하게 크면 채소를 팔아 자식을 키운 보람을 느낀다. 그러므로 직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폄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특정 직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직업에 대한 편견을 배제한 것이다. 반항심 많은 자식도 이렇게 표현하면 대꾸할 말을 찾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천한 직업으로 인식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직업을 천한 것인 양 드러내놓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 삼가는 게 좋다.

상인과 잡상인



사람들은 의사의 의료 행위를 곧잘 ‘인술’이라고 표현한다. 사람을 살리는 어진 기술이라는 뜻에서 붙인 별칭이다. 그런 의사를 ‘인술가’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의사라는 직업에 숭고한 이미지를 덧붙인 것이다. 교사를 ‘선생님’이나 ‘스승님’이라고 부르고, 간호사를 ‘백의의 천사’라고 부르는 것도 그 직업이나 직업 종사자를 존대하는 의미가 담겼다.

이와 달리 직업을 비꼬는 표현도 있다. 언론에서는 가끔 공공기관이나 국영기업체 등을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비아냥조로 표현한다. 이 말에는 편하고, 봉급 많고, 해직 걱정을 덜 해도 되는 직장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역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 체계를 빚댄 표현이다.

당사자가 이런 말을 듣는다면 서운해할 것이다. 특히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억울하게 느낄 수도 있다. 소수에게서 얻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구성원 전체에게 덧씌움으로써 해당 직업 또는 그 직업 종사자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 밖에 직업 자체를 비하하는 표현도 있다. 공공기관 건물 등에는 ‘잡상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다. 언론 매체도 잡상인이라는 말을 곧잘 사용한다. 상인과 잡상인은 고정된 판매 공간을 확보했는지, 일정 수준의 상품을 구비했는지 등에 따라 구별되겠지만, 잡(雜)이라는 말에 비하적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잡상인은 그 직업을 천대하는 말로 들린다.

봉급쟁이, 점쟁이, 환쟁이도 각각 봉급생활자, 역술가, 미술가를 낮추어 부르는 말로 인식되는 편이다. 본인 스스로를 지칭할 때는 긍정적인 의미가 담기기도 하지만 제삼자가 이런 말을 사용하면 실례가 될 수 있다.

텔레비전 드라마 등에서는 사실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범죄자들이 은어로 사용하는 ‘짹새’(경찰관)를 여과 없이 내보내고, 신문 등에서는 세무 공무원을 낮잡아 부르는 ‘세리’를 쓰기도 한다. 익명성이 강한 인터넷에서는 군인을 ‘군바리’로, 건설노동자를 ‘노가다’나 ‘막일꾼’으로, 연예인을 ‘판따라’로 표현하는 예가 적지 않다. 이들은 특정 직업이나 직업인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말이다.

한국 사람이 외국에 이민을 가면 처음에는 대개 허드렛일을 한다고 한다. 사무실에서 늘 의자에 앉아 일하던 사람은 막상 그런 일을 할 때 창피하게 느끼는데, 정작 그 나라 사람들은 창피하다는 느낌을 별로 갖지 않는다고 한다.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직업은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



회동을 갖고 만찬을 베푸는 사람들

우리말은 예사말과 높임말이 엄연히 구분된다. 친구들끼리는 '잘 자라'라고 하지만 나이 든 사람에게는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한다. 호칭도 '너, 형, 아저씨, 할아버지, 어르신' 등으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또 동년배라 하더라도 젊은 사람끼리는 '너'라고 부르지만, 나이 든 사람끼리는 '자네'라고 한다. 부부 간에는 '여보'나 '당신'이라고 부른다. 이런 화법에서 벗어나면 예의를 모르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같은 사물이라도 윗사람의 것일 때는 그 명칭이 달라진다. '밥'은 '진지'로, '집'은 '댁'으로 바뀐다. '생일'과 '생신', '나이'와 '연세', '아들'과 '아드님' 등도 마찬가지다.

윗사람을 높이는 표현에는 배려와 존중의 뜻이 담겨 있다. 하지만 높임 표현 속에는 권위주의적 신분 질서 의식도 배어 있다. 예전에 대통령에게 '각하'라고 부른 것이 그러한 예이다. 이는 나이의 상하 관계가 아닌 신분의 상하 관계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지금은 상하의 신분 질서가 어느 정도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수평 관계로 맺어지는 사회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각하'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는다. 대통령 부인 등을 가리키는 '영부인'도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이는 언론에서 주도하여 일반 사회로 전파되고 있다. 신분 관계의 높임 표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가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공적인 공간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런 높임법을 사용하는 예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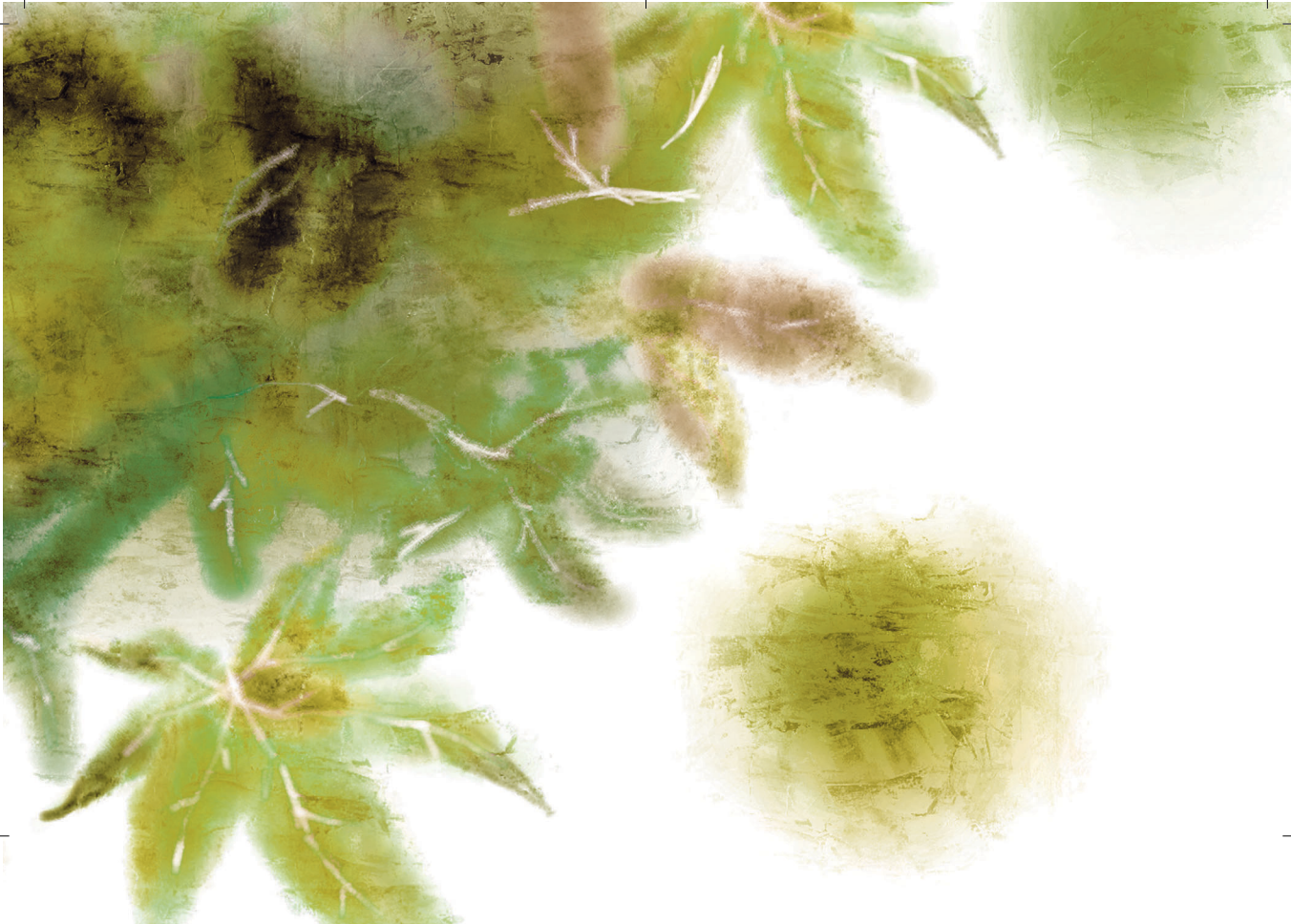
‘여야 의원들이 호텔에서 조찬 회동을 가졌다.’

‘정부 고위 인사가 만찬을 베풀었다.’

‘금일봉을 하사했다.’

신문에 흔히 이런 표현이 보인다. 아침 식사 모임을 조찬 회동이라고 한 것이다. 점심 식사 모임은 오찬 회동, 저녁 식사 모임은 만찬 회동이라고 한다. 또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또는 ‘저녁 식사 모임을 가졌다’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만찬을 베풀었다’라고 표현한다. ‘베풀다’는 말에는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금일봉을 하사했다’라는 말도 받는 쪽에서 보면 자신의 위상이 낮아지게 되어 마음이 불편할 수 있다. ‘금일봉을 전달했다’로 표현하면 주는 위치와 받는 위치가 같아진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하는 대상은 주로 정치인, 정부 관료, 기업체 사장 등이다.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일종의 권위주의적 표현이다. 치하(위로, 축하), 영접(맞이함) 등도 마찬가지다. 이런 표현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신분의 상하 관계를 따지는 인식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권위주의적 표현은 사회적 통합에도 걸림돌이 된다.



말이 더 아프게 한다



- 편견이 문제다
- 이런 표현 이렇게
- 꼬끼리가 괴로워
- 능력의 차이는 없다

편견이 문제다

지하철 역사에 승강기가 설치되었다. 건물 입구는 계단이 아닌 경사로로 되어 있다. 몸이 불편해 밖을 나서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일을 보러 다닌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특징만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는다. 내면의 인격과 능력을 평가한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사회의 냉대를 받아 오던 그들이 떳떳한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 사회도 이들이 열심히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문턱을 낮추어 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장애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아니, 부정적인 인식은 많이 사라졌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차별한다. 그것은 주로 그들을 가리키는 말에서 비롯된다.

‘저능아, 불구자, 병어리, 소경, 장님, 맹인, 애꾸눈, 앓은뱅이, 난쟁이, 귀머거리, 절름발이…….’

이런 용어는 그들을 차별하고 비하하는 말로 들리기 쉽다. 왜 그럴까. 첫째는 그것이 특정 장애 부위나 상태를 부각시켰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신체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을 강하게 표출한다.

둘째는 그런 용어가 과거 이미지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으로 냉대 받던 시대의 부정적 이미지까지 떠안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기존의 용어를 버리고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자는 논의가 생겨났다. 예컨대 저능아를 ‘지적장애인’으로, 장님이나 맹인을 ‘시각장애인’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바꾸면 무엇이 달라질까.

‘저능아’는 말 그대로 지능이 낮다는 뜻이다. 선천적 질병이어서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뜻도 내포돼 있다. 또 어른이 되어도 아이 취급을 받아야 한다. 그 대체어인 ‘지적장애인’에는 이런 뜻이 덜 들어 있다. ‘장애’가 ‘극복’이라는 말과 잘 어울리는 만큼 그 말에는 치유 가능성도 상존한다. 즉 이 용어에 내포된 이미지는 유연하고 객관적이다.

‘장님’이나 ‘맹인’에는 앞이 전혀 안 보인다는 뜻이 들어 있다. ‘시각장애인’은 이와 좀 다르다. 장애의 정도가 낮으면 어느 정도 시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 이 밖에 장님이나 맹인을 시각장애인으로 바꾸면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와도 단절되는 장점이 있다.





이런 표현 이렇게

‘봉사’나 ‘장님’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에만 초점을 둔 말이다. 이러한 표현은 사람 자체가 아니라 장애에만 관심을 쏟게 만든다.

그런데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할 법률에서도 여전히 차별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있다.

법률	사용 용어	권장 용어
형사소송법	불구자	장애인
형법	심신장애자	장애인
헌법	신체장애자	장애인
형법	농아자	청각 및 언어장애인

장애인을 가리키는 언어 표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이러한 말들이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식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즉 장애인에 대한 표현은 그 사회가 장애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준다. 장애인 관련 표현은 장애인들이 받는 차별과 불이익을 그대로 보여 주기도 한다. 이는 장애인의 인권이나 생존권 문제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손상된 부분만 강조하고 다른 능력은 간과하거나, 장애인을 별개의 집단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차별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권장 용어
맹인, 소경, 장님, 애꾸눈, 외눈박이, 사팔뜨기	시각장애인
병어리, 귀머거리, 언청이	청각 및 언어장애인
얹은뱅이, 절름발이, 지체부자유자, 외팔이, 절름발이	지체장애인
저능아, 정신박약아	지적장애인

장애를 가진 사람을 나와는 ‘틀린’ 사람으로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차별적 언어들이 사용된다.

사람에 대해 따뜻한 애정을 가질 때,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해질 때 이런 차별 언어들은 사라질 것이다. 윤석중 시인의 아름다운 시가 그 사실을 알려 준다.

사람 눈 밝으면 얼마나 밝으랴
사람 귀 밝으면 얼마나 밝으랴
산 너머 못 보기는 마찬가지
강 너머 못 듣기는 마찬가지
마음눈 밝으면 마음귀 밝으면
어둠은 사라지고 새 세상 열리네
달리자 마음속 자유의 길
오르자 마음속 평화 동산
남 대신 아픔을 견디는 괴로움
남 대신 눈물을 흘리는 외로움
우리가 덜어 주자 그 괴로움
우리가 달래 주자 그 외로움



코끼리가 괴로워

우리 사회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배려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사람들은 장애 관련 용어도 가려서 쓰려고 한다. 하지만 속담과 같은 비유적 표현은 우리 입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 무의식중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이 ‘병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 <신문 2008. 7. 25.

위기 대응 과정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이어서 - <신문 2008. 7. 18.

‘절름발이 내각’으로 정권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 <일보 2008. 2. 15.

언론 매체들은 구독률이나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다 보니 위의 예시문처럼 장애를 빗댄 속담을 인용할 때가 다반사다. 나아가 이런 비유를 재치 있는 표현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야 할까.



일각에서는 이런 표현이 일종의 언어 전통에 의한 것이므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과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비록 장애인의 행동 양태를 서술한 것이지만, 속담으로 굳어지는 과정에서 곁에 드러난 뜻보다는 비유의 뜻이 더 부각되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또 이를 일일이 피하다 보면 우리 말의 주요 표현 수단 중 하나인 속담이나 관용구를 사장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심지어 ‘병어리 냉가슴’을 ‘언어장애인 냉가슴’으로 고쳐야 하겠느냐고 반문할 사람도 있을 법하다. 물론 이처럼 다른 말로 대체하면 본래의 뜻이 희석되고 표현의 맛도 사라진다.

하지만 해당 장애인이 이 말을 듣는다면 분명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받아들일 것이다. 따라서 다수가 공감하는 그럴듯한 표현이니까 소수자, 약자들은 잠시 눈을 감거나 귀를 막으라는 식의 논리는 자칫 다수의 횡포가 될 수도 있다.

위의 기사들을 이렇게 고쳐 보면 어떨까.

국세청이 말 못할 고민에 빠졌다.

위기 대응 과정은 주먹구구식이어서

영성한 내각으로 정권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굳이 장애와 관련된 비유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실을 전달하는 방법은 많다. 글을 쓰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문제일 뿐이다. 언론 등 공공성이 짙은 매체는 일반인의 언어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이런 용어의 사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능력의 차이는 없다

나는 1급 신체 장애인이고, 암 투병을 한다. 그렇지만 이제껏 한 번도 내 삶이 천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사람들은 신체장애를 갖고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끔찍하고 비참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이 있듯이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 그런대로 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 솔직히 난 늘 내 옆을 지키는 목발을 유심히 보거나 남들이 ‘장애인 교수’ 운운할 때에야 ‘아참, 내가 장애인이었지’ 하고 새삼 깨닫는다. 장애인이 ‘장애’인이 되는 것은 신체적 불편 때문이라기 보다는 사회가 생산적 발전의 ‘장애’로 여겨 ‘장애인’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못 해서가 아니라 못하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해서 장애인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신체적 능력만을 능력으로 평가하는 비장애인들의 오만일지도 모른다.

— 장영희 교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중에서

장애인 교수, 장애인 피아니스트, 장애인 운동선수…….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다. 교수나 피아니스트나 운동선수 앞에 꼭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붙여 구별을 한다. 비장애인과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의 이미지 판단을 외부적으로 바로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각 분야에서 열심히 땀 흘리는 장애인의 모습에서 오히려 비장애인들은 특별한 감동을 느끼기도 한다.

소설가 고정욱 씨는 '가방 들어 주는 아이, 휠체어 하늘을 날다'와 같은 어린이들을 위한 책을 많이 쓰고 있다. 피아니스트인 이희아 씨는 아름다운 연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고 있으며 신지식인으로도 선정됐다. 수영선수 김세진 군은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선수로는 최연소 2위를 차지했다. 육상의 홍석만 선수는 2004 아테네장애인올림픽에서 세계신기록을 기록하며 2관왕에 올랐다.

고정욱 씨, 이희아 씨, 김세진 군, 홍석만 선수. 이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멋지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장애인이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 앞에 장애인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도 그들을 설명할 수 있고, 그들이 하는 일을 알려줄 수 있다.

2004 아테네장애인올림픽
육상 국가대표
홍석만 선수.

여자와 남자는 평등하다

- 남편 따라 죽으라는 말인지

- 복부인과 얼굴마담

- '처녀작'이라고?

- '여기자' 딱지를 뗐더니 이젠 '여류 작가'래

나보고
미망인?

남편 따라 죽으라는 말인지



그리운 당신에게

여보, 당신이 저와 태희, 태호만 남겨 두고 먼저 가신 지도 어느새 3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아이들에게 자상하고 저에겐 한없이 다정했던 당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사랑과 열정을 전파해 우리 가족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 받던 당신. 당신이 교통사고로 먼저 떠나고 난 뒤 저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숨쉬기조차 힘든 시간들이 온몸을 짓눌렀고, 고통의 나날은 영원히 이어질 것만 같았어요. 당신도 그곳에서 보고 계셨나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던 당신의 말이 맞더군요. 시간의 약효란 참으로 공평하게도 눈물이 마른 그 자리에 정확히 ‘망각’의 딱지를 얹혀 주었어요. 이제 당신이 곁에 없어도 밥을 잘 먹고, 잠도 푹 자고, 가끔은 배가 아프도록 웃기도 해요.

아이들이 아빠를 찾을 때, 당신을 향한 그리움이 밀려들 때마다 다짐을 해요. 잘 살아야겠다고. 당신 뒤편까지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그런데 오늘은 또 주체할 수 없는 자괴감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당신 기일을 맞아 마련된 추모의 자리에 아이들과 함께 참석한 걸 당신도 보았겠지요.

당신이 많이 생각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당혹스러운 가운데 떠오를 줄은 몰랐어요. 사회자가 저를 ‘미망인’으로 소개하더군요. 당신의 부고가 실린 신문에서도 그 단어를 접했지요. 사회자의 그 말에 태호가 묻더군요. “엄마, 미망인이 뭐야? 왜 엄마한테 미망인이래?” 갑작스러운 질문에 말문이 막힌 저는 헛기침을 몇 번 했지요. 그러고는 “응, 태호야. 아빠는 우리 맘속엔 같이 있지만 지금은 하늘 나라에 계시잖니. ‘미망인’은 엄마처럼 남편을 먼저 하늘 나라로 떠나보낸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야.” 태호에겐 그렇게 얘기했지만, 미망인(未亡人), 그 말을 듣고 ‘아직 따라 죽지 못한 사람’이란 글자 그대로의 뜻을 생각하니 당신의 부재로 텅 비어 버린 가슴에서 다시 아픔이 느껴지더군요. 미안해요, 여보. 못한 행동인 줄 알지만, 눈물을 보이더라도 오늘 하루만 눈감아 줘요. 내일부터 다시 웃을게요. 그곳에선 부디 건강하세요.

— 당신을 잊지 못하는 당신의 아내

미망인(未亡人): 아직 따라 죽지 못한 사람이란 뜻으로, 남편이 죽고 홀로 남은 여자를 이르는 말. 이 말은 본래 남편과 사별한 여인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이르던 일인칭 대명사였다. 그런데 지금은 뜻이 바뀌어 남편과 사별한 여자를 가리키는 일반 명사로도 쓰인다. 과거에는 남편을 따라 죽음을 택하는 것이 지조 있는 행동으로 여겨졌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이런 잣대로 남편과 사별한 부인의 지조를 평가하지 않는다. 게다가 본인이 스스로를 낮추어 ‘미망인’이라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이 ‘미망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부인을 잃은 남자에게는 ‘미망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미망인’에는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이 담겨 있다. 당사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가려 쓰는 것이 좋겠다.



복부인과 얼굴마담

주부 김소심 씨는 운전 경력이 1년밖에 안 됐다. 그 사이에 크고 작은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사고 때마다 자동차 뒷유리에 붙인 ‘초보운전’ 딱지를 바꾸었다. 처음에는 커다랗게 ‘왕초보’라고 써 붙였다가 3개월쯤 후엔 ‘밥 해 놓고 나왔어요’라는 문구로 바꾸고, 다시 6개월쯤 지나서는 ‘지금 밥하러 갑니다’로 바꾸었다. 현재 붙어 있는 문구는 ‘쌀 사러 나왔다’다.

소심 씨가 이처럼 문구를 바꾼 것은 남성 운전자들의 거친 말 때문이다. 그들은 소심 씨가 차의 속력을 늦추거나 조금 머뭇거리기만 해도 대뜸 ‘집에서 밥이나 하지 왜 차를 끌고 나왔느냐’는 식으로 한마디씩 한다.

주부가 밥을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들은 ‘주부=밥만 하는 사람’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운전이 서툰 것뿐인데 ‘밥이나 하지’라는 식으로 핀잔을 주니 자존심이 상한다. 이는 여성에 대해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선입견은 말 자체에도 배어 있다.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말에 여성성을 부여한 것이 적지 않다.

정부가 양도소득세의 50%를 환수한다지만 이미 복부인들은 이익을 남기고 떠났다. - 7일보 2009. 3. 31.

화합형 총리를 물색한다면서 실은 얼굴마담을 찾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1일보 2009. 9. 1.

이 기사에 나오는 ‘복부인’, ‘얼굴마담’은 부정적 의미로 쓰였다. 복부인은 ‘부동산 투기로 큰 이익을 꾀하는 부인’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부동산 투자를 여자들만 하는 건 아닌데, 유독 여성에게만 복부인이란 이름을 붙인다.

‘아줌마 부대가 객장에 나타나면 어김없이 천장이다’라는 증시 격언도 마찬가지다. 이 용어에도 ‘아줌마=비전문가’라는 부정적 뉘앙스가 담겨 있다. 비슷한 말로 ‘사모님식 투자’도 있다. ‘주먹구구식 투자’ 정도로 쓰면 성차별적 의미가 담기지 않는다.

‘얼굴마담’은 여성형으로 남성까지 대표하는 용어다. 이는 남녀에 고루 적용되는 말로 바꾸거나, 중성적인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황에 따라 ‘대리 사장’, ‘명의 사장’ 등으로 고쳐 볼 수 있다.





‘처녀작’이라고?

김달필 씨는 처음으로 장편소설을 냈다. 달필 씨는 소설의 주요 소비자인 20, 30대 여성 독자를 겨냥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막상 책이 출간된 후 독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달필 씨는 서점에 가서 직접 독자의 반응을 살펴봤다. 그랬더니 독자들이 겉표지만 보고 휙 돌아서는 것이 아닌가. 서점 직원이 귀뜸을 해 준다. “띠지에 쓰인 말이 여성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띠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한국 문단에 혜성같이 등장한 20대 남성 작가의 처녀작.’

처녀와 총각은 각각 결혼하지 않은 성년 여성과 남성을 가리킨다. 이 용어는 그 뜻대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처녀 귀신, 총각 귀신, 처녀 보살, 총각 도사 등등.

그런데 처녀에는 다른 뜻으로 붙는 말이 있다. 처녀림, 처녀봉, 처녀생식, 처녀작, 처녀향해 등이 그것이다. 이런 말은 영어에도 보인다. 처녀림에 해당하는 영어는 ‘버진 포리스트(virgin forest)’다. 전인미답의 봉우리를 뜻하는 처녀봉은 ‘버진 피크(virgin peak)’, 최초의 비행을 뜻하는 처녀비행은 ‘메이든 플라이트(maid flight)’, 처녀작은 ‘메이든 워크(maid work)’다. 버진(virgin)과 메이든(maid)에는 ‘처녀’ 또는 ‘소녀’라는 뜻이 담겼다.

‘처녀’라는 말에는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는 뉘앙스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처녀림은 ‘아무도 손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숲’이라는 뜻을 지닌다.

이는 여성의 순결을 강조한 전통 사고에서 비롯된 용어다. 예나 지금이나 순결은 고귀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남성 위주의 시각에서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느낌으로 적용된다면 문제가 된다.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 ‘처녀작’이란 말은 성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이다.

‘처음’이라는 뜻으로 굳이 ‘처녀-’를 써야 할까. 여성의 성적·신체적인 면을 이용한 이런 표현에는 남성 중심 사고가 자리 잡고 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처음, 첫’으로 표현해도 의미를 전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얼마 전 유럽연합은 ‘미스(Miss)’와 ‘미시즈(Mrs.)’를 사용하지 말자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남성에게는 ‘미스터(Mr.)’라는 용어만 사용하는데 여성은 결혼 여부에 따라 ‘미스’와 ‘미시즈’로 구별하는 것은 차별적이라는 것이다. 서양 사람들은 ‘스포츠맨(sportsman)’도 남성을 의미하는 ‘man’이 붙는다고 ‘스포츠퍼슨(sportsperson)’이나 ‘애슬리트(athlete)’로 쓰고, ‘스튜어디스(stewardess)’도 ‘플라이트 어텐던트(flight attendant)’로 바꾸어 쓴다. 또 ‘폴리스맨(policeman)’은 ‘폴리스 오피서(police officer)’로, 소방관을 뜻하는 ‘파이어맨(fireman)’은 ‘파이어 파이터(fire fighter)’로 의식적으로 바뀌 부른다. 성차별적 용어를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표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처녀생식’을 ‘단성생식’으로 바꾸어 쓰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용어를 쓰려는 노력이 열매를 맺은 사례다. ‘남성에 의한 수정 없이 배아가 성장, 발달하는 것’을 뜻하는 ‘처녀생식’은 점차 ‘단성생식’이란 말로 대체되어 최근 언론에선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여기자’ 딱지를 뗐더니 이젠 ‘여류 작가’래

대학을 갓 졸업한 이선영 씨는 잡지사에 취직했다.

하루는 선배가 이선영 씨에게 저녁 시간을 비워 두라고 했다. 퇴근 후 선배가 데리고 간 곳은 근사한 한정식집이었다.

그 선배는 나이 지긋한 거래처 간부들에게 이선영 씨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이번에 새로 뽑은 여기자입니다. 우리 팀의 홍일점이지요.”

선배는 이어 이선영 씨를 손님 옆에 앉으라고 권했다. 그러자 그 간부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쁘네요, 그 회사 일할 맛 나겠어요.”

그 말에 이선영 씨는 무척 당황했다. 거래처 간부가 자신의 외모를 훑어보는 데 이르러서는 모욕감마저 느꼈다. 더 기분이 나빴던 것은, 선배가 자신의 외모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의 환심을 사려 했다는 사실이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이선영 씨는 점점 잡지사 일이 싫어졌다. 남자 직원들이 자기더러 ‘미녀 기자’라고 치켜세우는 것도 왠지 음험한 뜻을 담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외모로만 평가하는 사람들이 혐오스러웠다.

같은 조건에서 힘들게 취재하고 경쟁하는데도 ‘여기자라서 유리하다’거나, ‘여기자치고 대단하다’는 말을 들으면 속에서 화가 끓었다. 이선영 씨는 그런 직업 환경에 회의를 느끼고 퇴사했다.

이후 자신의 경험담을 소설로 펴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선영 씨를 ‘기자 출신 여류 작가’로 불렀다. 겨우 ‘여기자’ 딱지를 뗐나 했더니 이번엔 ‘여류’란 말이 붙었다.

물론 ‘여성’임을 밝혀야 할 상황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도 ‘여성’임을 밝혀 차별을 나타내는 예가 적지 않다. 직업인으로 정당하게 대하기 전에 ‘여성’으로 먼저 상대를 보게 하는 것이다.

‘일정 비율의 여교수’란 표현에서처럼 남녀를 드러내야 할 때 ‘여’는 반드시 필요한 정보다. 성차별적이지 않다. 그러나 어느 기사의 제목으로 쓰인 ‘담백한 여성 대변인 ○○○ 의원’에서 ‘여성 대변인’은 성차별적 표현이 될 수 있다. 대변인이라는 인물 특성을 소개하면서 여성이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대변인의 자질보다는 여성임을 먼저 드러내 여성이 접근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뉘앙스를 풍긴다. 직업에서 남녀 차이를 강조하는 표현 형태로 볼 수 있다.

직업 등에 흔히 붙이는 ‘여-’, ‘여류’, ‘여성’이란 말에는 진면목을 보지 않고 능력을 한정하는 차별적인 시선과 함께 ‘여성이란 이름으로’ 불필요한 주목을 감내하라는 무언의 압력이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



낮은 사람 없고,
낮은 지역 없다



- 서울, 서울, 서울

- 이라면 '지방'이 억울해

- 시골, 촌사람, 촌뜨기

- 살색에서 살구색으로

- 우리는 친구

- 절반만 한국인?

- 재일동포, 재미동포, 조선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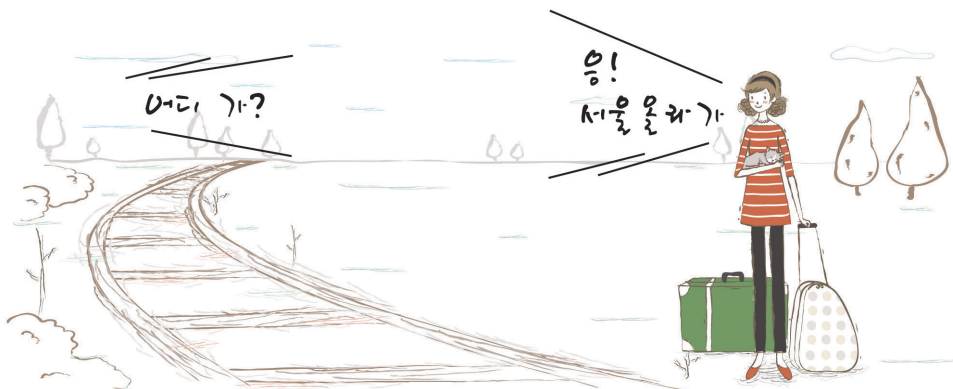
서울, 서울, 서울

상경(上京) 上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옴.

국어사전의 뜻풀이가 눈에 띈다.

‘올라감’이라고 하지 않고 ‘올라옴’이라고 했다. ‘오다’는 말하는 사람이 있는 쪽으로 위치를 옮긴다는 말이다. 서울에 있는 사전 편찬자가 자신이 기준이 돼 설명을 달았다. ‘서울’이 아니어도 ‘올라옴’이라고 했을까.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관찰자가 되어 ‘올라감’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서울’이 갖는 중력이 판단력을 흐리게 했을지도 모른다.

‘상경’이라는 말 자체가 국어사전의 표제어로 올라가 있고, ‘올라가다’라는 단어의 뜻풀이에는 ‘지방에서 중앙으로 가다’가 있다. 이 정도로 ‘서울’은 힘이 세다. 서울보다 아래쪽에서 가도 ‘상경’이고, 위쪽에서 가도 ‘상경’이라고 한다.



‘올라가는 서울’은 일상적이다. 흥미롭게도 공적인 공간에서도 여전히 그렇다.
‘서울’은 이렇게 표현된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이날 새벽 고속버스 등을 이용해 서울로 올라올 것으로
알려졌다. - 한신문 2009. 5. 29.

오전 6시경 400여km 떨어진 경남에서 상경하려 한 행위만으로 -
- 일보 2009. 6. 4.

“서울~춘천 통행료 인하” 상경 투쟁 선언 - 한신문 2009. 7. 2.

서울에서 자동차로 6시간 440킬로미터 떨어진,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의 나로우
주센터 - 한방송 2009. 8. 15.

‘대학로’는 서울에만 있지 않다. 전북 전주에도 있고, 경북 경산에도 있다.
그렇지만 서울의 대학로는 그냥 대학로다. 서울이 표시되지 않는다. 삼청동,
역삼동 등 서울의 동들도 종종 그곳이 서울인지 밝히지 않은 채 언론 매체에서
사용된다. ‘크기는 여의도 면적의 3분의 2’처럼 서울의 여의도는 면적을 표시
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지방에 사는 사람이 ‘여의도’ 크기를 얼마만큼 알까.

서울 중심주의적인 시각에서 나오는 표현들이다. 이러한 표현은 ‘서울’만
알게 한다. 서울이 처음이고 끝인 의식을 심는다. 나머지 지역에는 소외, 좌절,
열등감을 준다. ‘우리’가 아니라 ‘남’이 되게 한다. 또 하나의 차별이다. 서울이
곧 대한민국은 아니다. 서울 이외의 지역은 변두리가 아니라 또 다른 중심이다.
‘올라가는 서울’이 아니라 ‘가는 서울’이 더 정당성을 갖는다.



이러면 ‘지방’이 억울해

지방대 출신이 캐나다 명문대 교수 됐다

대전 지역의 한 사립대를 나온 40대 박사가 캐나다에서 손꼽히는 명문대의 교수로 임용돼 화제다.

18일 배재대에 따르면 이 대학 생명유전공학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캐나다 맥길

대(McGill University)에서 2001년 박사학위를 취득한 최영준 박사(41·87학번)가 지난 4월 맥길대 생물자원공학과(Department of Bioresources Engineering) 교수로 임용됐다.

- 뉴스 2009. 5. 18.

우수성을 알리고 싶었다. 그런데 대상 인물이 서울이 아닌 지역의 대학을 나왔다. ‘지방’의 대학을 다녔다. ‘지방’ 자체가 뉴스가 된다고 판단했다. “지방대 출신이 캐나다 명문대 교수 됐다” 거리낌 없이 이런 제목이 달렸다. ‘지방대’에서 해외 명문대 교수가 나와서 ‘의외’라는 전제가 깔렸다. 우수성을 드러내려 했지만, 동시에 ‘지방대’에는 상처를 줬다. 서울에서 떨어져 있는 ‘지방’은 의식 속에 ‘낙후된’ ‘낮은’ 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지방’은 대부분 ‘내려가는’ 곳으로 표현된다.

서울맹학교를 졸업하고 전남 순천시 삼재팔동 고향으로 내려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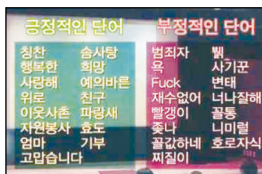
7일보 2009. 9. 29.

한나라당 박희태 전 대표가 7일 당 대표직을 던지고 경남 양산으로 내려갔다. -

8신문 2009. 9. 8.

집안일로 광주에 자주 내려가는 편이다. - 2일보 2009. 7. 8.

이런 식의 표현은 ‘지방’에 부정적인 의식을 알게 모르게 심는다. 의식적으로 그냥 ‘간다’고 표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말은 우리의 의식을 바꾸고
행동을 바꾼다.”

한글날인 2009년 10월 9일 국립국어원과 문화방송 공동기획으로 ‘말의 힘’이라는 특집 프로그램이 방송됐다. 이 프로그램은 20대 남녀 12명을 대상으로 작은 실험을 했다. 30개의 단어 카드를 이용해 5분 안에 3개의 문장을 만들게 했다. 그리고 눈치 못 채게 40미터를 걷는 이들의 걸음걸이를 측정했다.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받은 사람, ‘젊음’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받은 사람으로 나눴다. 결과는 놀라웠다. ‘노인’에 관련된 단어를 받은 사람들은 실험 후 걸음걸이가 평균 2.32초 늦어졌다. 반대로 ‘젊음’에 관련된 단어를 받은 사람들은 2.46초 빨라졌다.

언어의 힘은 강하다. 우리의 의식을 바꾸고 행동을 바꾼다. 언어는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



시골, 촌사람, 촌뜨기

화려한 불빛, 수없이 많은 자동차, 빌딩, 엘리베이터……. 도시는 이런 것들을 연상시킨다. 이런 도시는 많은 편리함을 주지만 여유와 평온을 덜 느끼게 한다.

맑은 시냇물, 넓은 들판, 낮은 지붕……. 시골은 화려하지 않다. 대신 편안함, 평화, 정겨움을 준다. 그러나 시골의 의미는 ‘있는 그대로’가 아니다. 단순히 ‘도시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지 않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시골은 곧 ‘변두리’가 되고 만다. 언론 매체의 말과 글은 이를 더 널리 퍼뜨린다. ‘시골’이나 ‘촌’과 관련된 말들은 더 부정적으로 변한다.

‘촌스럽다’는 세련되지 않다는 말이 되고, 뭔가 어수룩하다는 뜻이 된다. ‘촌사람’은 단순히 ‘시골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견문이 좁고 어수룩한 사람’으로 비유된다. ‘촌티’는 벗어나야 하는 무엇이 돼 버렸다. ‘촌놈’은 심한 욕이 되기도 한다.

“뭐, 나더러 촌놈이라고?”… 방화 살해 시도

…자신의 애완견에게 ‘촌놈’이라고 말한 것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오인해 50대 주점 여주인을 방화 살해하려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

□일보 2009. 9. 8.

도시가 아닌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촌’이나 ‘시골’이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 것이 달가울 리 없다. 어느 아나운서의 글을 보면 시청자들도 종종 이런 불만을 표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송 프로그램에도 자주 나오는 ‘촌스럽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시청자들은 불만이 많다. …… 도시가 아닌 촌에 사는 시청자들은 들으실 때마다 언짢았던 모양이었다. ‘도시와 시골을 좋고 나쁨의 비교 대상으로 보고 말하는 것은 도시와 농촌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 인구 분산 정책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이는 더 나아가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일이다. 내 말을 그냥 흘려듣지 마라. 우리 시골 사람들, 공기도 나쁜 도시에 가서 돈 주면서 살라고 해도 안 간다.’ 시청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질타하는데 백 번 옳은 말씀이 아닐 수 없었다. - 박경희 KBS 아나운서, 「아나운서 저널」 2009년 가을호

공적인 공간에서 쓰는 말과 글은 신중해야 한다. 자칫 공정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면 특정한 부류, 지역을 차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전파력이 크다는 점에서 심각하고 그러한 표현이 어느 정도는 정당성을 갖도록 한다. 치우치지 않는지, 누구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는지 살피고 살펴야 옳다. 그러지 않으면 그 말이 차별 받는 사람들을 더 차별하게 만든다. 말이 그렇게 규정해 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마음도 행동도 그 말을 따르게 된다.

목걸이와 귀걸이, 반지를 모두 착용하기보다 한 군데에 포인트를 줘야 촌티를 벗을 수 있다. - <일보 2009. 1. 1.

‘촌티’라는 표현 대신 “……포인트를 줘야 세련되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될까.

키가 작은 데다 초라한 촌사람같이 보였기 때문이다. - <일보 2009. 2. 25.

아예 ‘촌사람’을 초라하다고 했다. 촌에 산다고 다 초라한 것은 아니다. 말이 이런 생각을 심었고 이런 말을 낳았다. 여기서 ‘촌사람’이란 말은 빼도 의미를 전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다”면 충분하다.

강원도 홍천의 촌뜨기였던 그가 축구를 시작해 한국 국가대표팀 부동의 왕백으로 자리 잡는 과정뿐 아니라 - <일보 2009. 6. 19.

‘촌뜨기’는 ‘촌사람’을 더욱 낮춘 말이다. 여기서는 특정 지역 사람을 이렇게 부른 게 된다. “강원도 홍천에서 자란 그가……” 이렇게 해도 된다. 누구를 비하하면 일부는 재미있을지 몰라도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된다.



살색에서 살구색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청소년 역사모임’ 회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2009년 8월 25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에서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언론과 기업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마이뉴스



피해자 : 대한민국 어린이들

차별행위 당사자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살색을 연주항으로 고친 위원 및 담당자

2004년 8월 어린이 여섯 명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한 건의 진정서를 제출한다. 진정서에는 수많은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받고 있는 차별을 시정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어린이들은 크레파스와 물감을 자주 사용한다.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인 ‘연주항’을 사용하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차별이다. ‘살구색’으로 바꿔 달라.”

2005년 5월 산업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연주황’을 ‘살구색’으로 바꾼다. 이에 앞서 2002년 11월에는 ‘살색’이 ‘연주황’으로 바뀌었었다.

“크레파스의 특정 색을 ‘살색’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종차별이다.”

2001년 11월 김해성 목사와 외국인 노동자들이 기술표준원장과 크레파스 제조업체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2002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이런 결정을 내린다. “특정 색을 ‘살색’이라고 명명한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기술표준원에 한국산업규격(KS)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기술표준원은 2002년 11월부터 ‘살색’ 대신 ‘연주황’을 사용하도록 했다.

하나의 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차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우리의 의식에 변화가 일었다. 그 변화는 언어에 반영됐다. ‘살색’은 ‘연주황’이 됐다가 다시 ‘살구색’이 됐다.

2009년 9월 한 인터넷 쇼핑몰 광고가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인다. “이게 무슨 핑크색이에요. 살색이구만”이라는 광고의 대사 때문이었다. 누리꾼들은 경제와 문화를 선도해 가는 기업으로서 배려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업체는 곧바로 수정 결정을 내린다. 업체 측은 이렇게 밝혔다.

“살색이란 용어가 인종차별적 소지가 있는지 최근에야 알았다.”, “익숙하게 사용하는 단어이다 보니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외국인이 100만 명 이상 사는 다문화 시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곳이 아직 많다.

밀줄각버섯은 표면이 **살색** 또는 **홍갈색**을 띠며 습하면 줄이 생긴다 -

ㄴ신문 2009. 4. 1.

시는 남산 르네상스 사업의 경우 **진한살색**, **남산초록색**, **연두색**, **서울하늘색** 등 -

ㅇ신문 2009. 9. 9

나무 기둥 사이에는 따뜻한 **살색** 황토벽과 창호지를 - ㅇ뉴스 2009. 11. 16.



우리는 친구

“더러워. 이 개××야.”

“너 어디서 왔어. 냄새나는 ××야.”

2009년 7월 10일 밤 9시, 경기도 부천에서 서울 구로역으로 가는 시내버스 안. 버스 뒤쪽에 앉아 있던 30대 초반의 남자가 갑자기 앞쪽을 향해 욕설을 퍼부어대기 시작했다. 욕설이 향한 곳은 한 인도인 남성. 그는 한국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인도인 남성이 뒤를 돌아보자 남자는 샷대질까지 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한국인 친구가 왜 그러냐며 따졌다. 그러자 그 남자는 “넌 뭐야? 조선× 맞냐”며 더 소리를 높였다. 급기야 그 남자는 인도인 남성을 향해 손가락을 치켜들며 영어 욕설까지 했다. 실랑이는 10여 분간 계속됐다. 인도인 남성은 참다 못해 경찰서를 찾았다.

경찰은 30대 남자와 한국인 친구에게는 존댓말을 썼다. 그러나 인도인 남성에게는 반말로 대했다. “네가 교수야?” 또 다른 차별이었고 배타적인 행위였다. 인도인 남성은 보노깃 후세인(28) 성공회대 연구교수였다. 후세인 교수는 한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길을 다니다 보면 특히 동남아시아인들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차별을 느껴요. 저를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고요. ‘동남아시아인=공장 노동자’라는 공식이 성립되어 있죠. 제가 동남아시아인처럼 보인다는 게 기분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동남

아시아인들이건, 공장 노동자이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국에 인종주의가 만연해 있음에도 문제는 아무도 그것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얘기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예요. 한국엔 120만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고 또 외국인 가족을 가진 사람들,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해요. 아무런 노력 없이 인종주의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 경향신문 2009. 10. 1.

이제 우리는 ‘다문화’ 구호를 외친다. 그러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사건은 이러한 구호를 무색하게 한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의식은 여전히 크게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은 언어를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말은 다시 차별을 굳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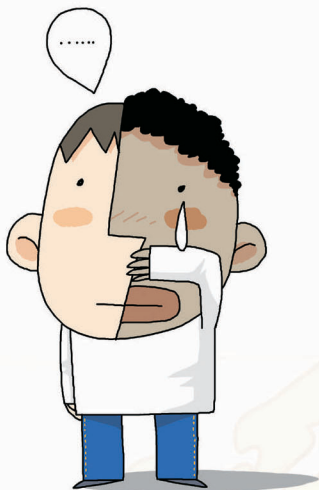
시범 경기를 통해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혼혈 특급’ 전태풍 (29·KCC)의 기량이 확인됨에 따라 - 매일 2009. 10. 13.

혼혈 가수 인순이 씨와 함께 부르는 노래 - 매일 2009. 11. 3.

‘혼혈’이라는 수식어가 반드시 필요했을까? 그냥 ‘특급’이고 ‘가수’라고 하면 정보를 전달하는 데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그렇지 않아 보인다. 굳이 다른 무엇을 드러내 강조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등장인물을 다른 눈으로 보게 했다.

‘혼혈’이라는 말은 배타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 2007년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이 다민족 사회임을 인정하고 ‘단일민족’이라는 이미지를 극복할 것을 권고했다. ‘혼혈’ ‘순혈’ 같은 말들은 인종차별을 부추진다고 지적했다.





절반만 한국인?

가수 인순이 씨와 미국 프로풋볼(NFL) 슈퍼볼의 영웅 하인스 워드 선수는 대중 문화와 스포츠계에서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갖고 활발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을 부를 때 아직도 ‘혼혈인, 튀기’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혼혈(混血) 명 서로 인종이 다른 혈통이 섞임. 또는 그 혈통.

튀기 명 ‘혼혈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

물론 ‘혼혈’은 사전적인 의미로만 본다면 차별어는 아니다. 하지만 혼혈인이라는 단어는 혈통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돼 왔다. 즉 우리와는 혈통이 다른 사람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튀기’는 공식석상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아직도 사적인 대화에서는 쓰이고 있는데 쓰지 말아야 할 용어다.

다문화 가정은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총칭하는 용어다. 이 용어는 2003년 건강가정시민연대가 ‘국제결혼 가정, 혼혈아’ 등의 차별적 용어 대신 ‘다문화 가족이나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족 2세’로 부

르자고 제안함으로써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제는 이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가끔은 차별적 용어가 눈에 띈다. 최근에는 국적 없는 새로운 단어가 보인다. 텔레비전과 신문에서 종종 눈에 띄는 ‘하프 코리안’이란 표현이다.

앵커 : 프로농구가 오는 15일 개막돼 6개월간의 열전을 시작하는데요, 이번 시즌은 전태풍과 이승준 등 새로 선보일 혼혈 선수들이 우승 판도의 커다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기자입니다.

〈리포트〉 …… 이런 선택에는 기존 전력도 전력이지만 전태풍과 이승준이라는 ‘하프 코리안’이 합류했기 때문입니다. - ㅎ방송 2009. 10. 12.

하프 코리안 성적표는? 전태풍은 맹활약하고 있지만 팀이 부진… - ㅈ일보 10. 27.

그동안에도 다문화 가족 2세를 ‘코메리칸, 아메리시안, 코시안’ 등으로도 불러왔지만 국적 불명의 명칭이어서 잘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새롭게 ‘하프 코리안’이라는 또 다른 부적절한 용어가 언론에서 사용된다. ‘절반은 한국인’, 참 이상한 표현이다. 피부색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한반도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절반은 한국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재일동포, 재미동포, 조선족?

눈물을 흘리며 조국을 등지고 중국으로, 러시아로 떠나갔다.

구한말 나라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웠고, 사람들의 삶은 피폐해져 갔다. 새로운 터전을 찾아 정든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면서 이러한 사람들의 수는 더 늘어갈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도 조국의 광복을 위해 이 대열에 합류했다.

낯설고 물신 곳에 집을 짓고 불모지를 개간했다. 아이들도 태어났다. 그렇게 만들어진 마을은 독립군이 뿌리를 내리고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이기도 했다. 희망이었다. 그러나 고난이고 절망이기도 했다.

조국은 광복을 맞았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그들의 운명이었다. 중국 땅에 머물던 이들과 2세, 3세들은 ‘조선족’이란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1992년 막혀 있던 한국과 중국 사이에 길이 열렸다. 두 나라가 외교관계를 맺은 것이다. 뿌리를 찾고 꿈을 이루기 위해 그들은 한국 땅을 찾기 시작했다. 지금은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들이 됐다.

“조선족이세요?”

이렇게 물으면 그들은 서운하다.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한국 땅을 찾았는데 마치 다른 민족 대하듯 하니 말이다. 중국에는 50여 소수민족이 산다.

우리와 같은 민족인 조선족은 그 가운데 하나다. 중국에서 다른 중국인들이 만주족이나 한족과 구분하기 위해 ‘조선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가 ‘조선족’이라고 하면 우리와 그들이 다른 민족이라는 말이 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쓰이는 ‘조선족’이라는 말에는 차별적인 의미가 들어 있다. 일본에 거주하는 이들에게는 ‘재일동포’, ‘재일교포’라고 한다. 미국에 사는 이들을 지칭할 때는 ‘재미동포’, ‘재미교포’라고 한다. ‘조선족’이란 표현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알보고 차별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공적인 공간에서도 ‘조선족’이라는 말은 수없이 등장한다.

“조선족 아주머니~ 우리 소주 부탁해” - □일보 2009. 9. 10.

50대 중반의 조선족 A 씨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로 일하면서 -

□신문 2008. 1. 19.

차별이다. 중국인들이 쓰는 ‘조선족’이란 명칭은 차별이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쓰는 ‘조선족’은 차별이다. ‘조선족’이란 표현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빼고는 ‘재일동포’ ‘재미동포’처럼 ‘재중동포’ 혹은 ‘중국동포’라고 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말해도 되나

- 말이 예뻐야지요

- 노인보다는 어르신

- 강남에 사는 명품남 씨

- 우리 것은 헌것, 서양 것은 새것?

- 험악하게 말해 봐?

말이 예뻐야지요

잘나가는 코미디언 나보라 씨의 별명은 자칭 타칭 ‘울트라똥녀’다. 그녀가 흰철한 남자에게 다가가 윙크를 한다. 남자가 집게손가락으로 그녀의 머리를 민다. 여자가 뒤로 넘어진다. 방청객이 자지러지게 웃는다.

대학생 이미선 씨는 얼른 텔레비전을 켜다. 코미디 프로에 나온 나보라 씨가 자신과 닮은 것이다. 나보라 씨가 자신의 외모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은 보기 좋지만, 외모를 상품화해 남들의 웃음을 자아내는 것은 못마땅하다. 또 동료 코미디언이 그녀에게 ‘얼뽕’이니, ‘몸뺑’이니, ‘숫다리’니 하는 것을 보노라면 마치 자기에게 말하는 것 같아 불쾌해지기도 한다.

직장인 김삿별 씨는 남자 선배들과 식사를 하다가 몸 둘 바를 몰랐다. 선배들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듣기 거북한 말을 한 것이다.

“저 탤런트 진짜 얼짱이다.”

“완벽한 에스라인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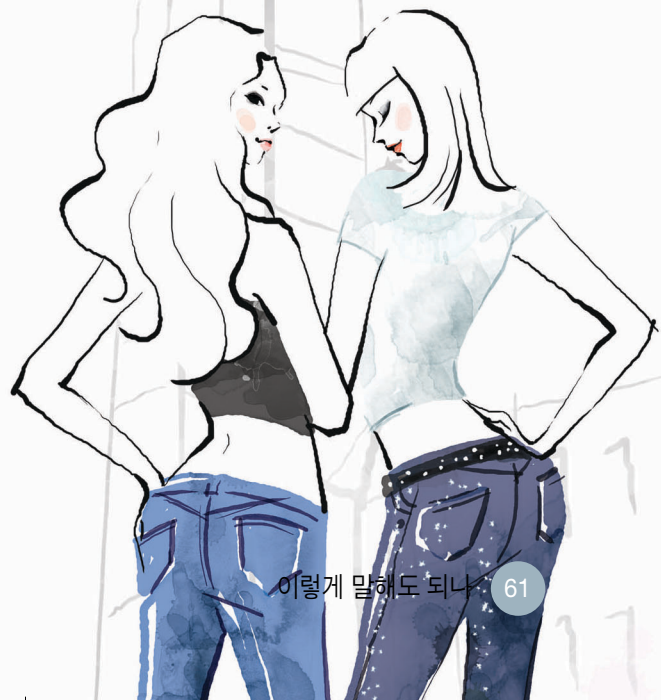
그러더니 그중 한 사람이 한술 더 떠 자기에게 묘한 말을 던졌다.

“삿별 씨도 저 탤런트 못지않아.”

샷별 씨는 직장 남자들이 평소 자기 몸을 유심히 보아 온 것 같아서 부끄러웠다.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지만, 마치 성희롱을 당하는 것처럼 당황스러웠다. 여자 앞에서 ‘얼짱’이니 ‘에스라인’이니 폼평하는 것도 못마땅한 차에 이런 말을 들으니 참을 수가 없었다.

요즘 남의 외모를 폼평하는 게 유행이다.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에서는 ‘에스라인’이니 ‘쭉쭉빵빵’이니 하는 말이 여과 없이 나오고, 인터넷에서는 ‘꿀벅지, 껌가슴’ 등 듣기 민망한 말이 범람한다.

이제는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추세다. 특히 남성의 눈으로 여성을 바라보는 용어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외모를 상품 가치로 인식하고 인정보다는 외모로써 사람을 판단하는 외모 중심주의를 낳기 쉽다. 특히 여성성을 드러내는 선정적 용어는 자제하는 게 좋다.





노인보다는 어르신

1999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세계노인의 해를 맞아 ‘노인’이라는 호칭 대신 ‘어르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고 했다. ‘선인, 경인, 노장, 은파, 원로’ 같은 많은 호칭 중에서 어르신이 선택된 것이다.

‘어르신’은 사회에 대한 공헌의 경륜이 담긴 표현이다. 또 경로효친의 우리 전통이 잘 나타나 있는 말이다. 미국에서도 ‘old people’이나 ‘aged person’ 대신에 ‘senior citizen’을 사용하는 것이 예의에 맞는다고 한다.

원래 ‘어르신’은 남의 아버지를 높여 부르는 말로 쓰여 왔다. 즉 호칭어이다. 이는 남을 가리키는 말, 곧 지칭어인 ‘노인’과는 사용 범위가 다르다. 하지만 호칭과 지칭을 구별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노인을 공경합시다’와 ‘어르신을 공경합시다’는 둘 다 가능한 표현이다. 이런 때는 후자를 사용하는 게 좋다. 왜 그럴까.

‘노인’이라는 용어에는 부정적 의미도 들어 있다. 나이가 많다는 점이 부각되고, 기력이 약하다는 속뜻도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자신이 노인으로 대접받는 것을 꺼리기도 한다. ‘노인’이 나이에 치중한 언어 표현이라면, ‘어르신’은 살아온 연륜을 중시한 표현이다. ‘노인’이라는 용어를 버릴 수는 없지만, 양자택일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어르신’을 쓰는 게 좋다.

나이와 기력을 부각시키는 말 중에는 ‘고령’도 있다. 나이 많은 사람을 ‘고령자’라고 하고, 그들이 전체 인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면 ‘고령사회’라고 한다. 그런데 이 고령이란 말이 엉뚱하게 쓰이기도 한다. ‘35세 이상의 임신은 고령 임신’이란 표현이 있다. 고령이란 용어가 갖는 일반적 의미를 임신부들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의학적으로는 사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때는 일반적인 의미로 ‘늦은 임신’ 정도로 표현하면 좋을 것이다.

‘미숙아’라는 표현도 그렇다. 일찍 태어났지만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받아서 제때에 태어난 아이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체중이 적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미숙아라는 꼬리표를 붙인다. ‘미숙’에는 ‘정상’이 아니라는 부정적 의미가 있다. 요즘은 대체 신조어로 ‘이른둥이’란 말이 사용된다.

그동안 쉽게, 익숙하게 사용해 왔던 용어들이 당사자에게 불편하다면, 그리고 차별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 듣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말로 대체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

강남에 사는 명품남 씨



이동통신회사 연구개발실에서 근무하는 정선명(29) 씨는 이번 주 토요일에 소개팅을 하기로 했다.

직장 동료가 소개해 주기로 한 상대는 명문대 인기학과를 졸업한 명품남(33) 씨이다.

선명 씨는 품남 씨의 이름이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다.

이름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 바보 같은 일이지만, 그래도 품남 씨가 좀 귀티나게 생기고 옷차림도 세련됐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기다리던 토요일. 커피숍에서 처음 만난 품남 씨에게 선명 씨는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저기요, 무슨 일을 하세요?” “예, 전문직입니다.”

“전문직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뭐, 전문적인 일이죠.”

“말씀을 참 재밌게 하시네요. 저기 그럼 지금 살고 계신 곳은?” “예, 강남이에요.”

“강남이라면…… 서초 송파 강남구 중에 어디에?” “그냥, 강남 쪽이에요.”

“말씀을 정확히 안 하시네요. 저기, 대학은 어디를 나오셨어요?” “예, 명문대 졸업했습니다.”

“명문대라면 흔히들 말하는 스카이(S·K·Y)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냥 명문대예요. 명문대 인기학과.”

“그런 대학은 못 들어봤는데……. 그럼 여가 시간엔 주로 뭐 하세요?”

“아, 제 취미는 쇼핑입니다. 시계, 가방, 옷, 구두, 지갑, 외제 자동차 등 명품 사는 걸 좋아해요.”

“명품이라면, 시계나 가방 중에선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세요?” “아, 브랜드 같은 건 잘 모르구요. 그냥 비싼 물건은 다 좋아요.”

“아, 예. 그러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커피 더 드실 거죠?”

“예.”

“그럼, 저 먼저 일어날게요.”

커피숍을 나오는 선명 씨에게 ‘명품남’ 씨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유명처럼 느껴졌다.

고가의 시계, 가방, 자동차를 소유하면 ‘명품남’이고, 값비싼 핸드백과 옷, 액세서리를 지니면 ‘명품녀’인가?

정확한 뜻을 알 수 없는 이 ‘명품’이란 말에 ‘고가 사치품’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덮으려는 장삿속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대졸자 취업난이 사상 최악인 상황에서도 국내 명문대 인기학과 졸업생들은 예나 지금이나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명문대 인기학과 졸업생이 채용시장에서 일종의 ‘명품(名品)’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 ㄷ일보 2006. 12. 7.

‘명문대’로 불리지 않는 나머지는 ‘비명문대’가 된다. ‘명문’과 ‘비명문’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분명하지 않다. 가치 판단의 기준은 개인에 따라 달라진다. ‘명문대’는 불필요한 수식어일 때가 많다. 때로는 ‘일부 대학’이 적당할 때도 있다. 의미가 모호한 ‘명품’이란 용어를 사람에게 끌어다 붙여 주체여야 할 사람을 대상화, 객체화하는 일이 많다. 상품에 쓰이는 ‘명품’이라는 표현은 사치품을 많이 팔려는 상술에 이용되는 측면도 있다.

우리 것은 헌것, 서양 것은 새것?

한국 참가팀은 할머니 태권도단의 시범, 탱고댄스, 고전무용 등을 무대에 올린다. - **ㅎ일보** 2009. 10. 9.

대규모 설치미술, 매년 60편이 넘는 월드 댄스뮤직 파티, 현대무용 등을 선보였으며 이제 매년 12만 명이 다녀간다. - **ㄷ일보** 2009. 11. 6.

여기서 ‘고전무용’은 어느 나라 무용일까? 우리나라 전통무용을 뜻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현대무용’은 서양식 무용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우리는 고전무용과 현대무용을 이렇게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고전무용’ 하면 우리나라만의 전통무용, ‘현대무용’ 하면 서양식 무용이 된다. 그러나 고전무용은 우리나라만의 전통무용이 아니다. 중국에도, 일본에도, 인도에도 있다. 현대무용 또한 그렇다. 이러한 ‘고전무용’, ‘현대무용’의 쓰임새에선 이런 우리의 의식이 읽힌다.

‘우리 것은 헛것, 서양 것은 새것…….’

공적인 공간의 언어들은 이런 의식을 더욱 굳게 퍼뜨린다. 더 분명한 표현을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클래식’은 고전음악을 뜻한다. 동양에도 서양에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클래식’은 ‘서양의 고전음악’으로만 통한다. 편견을 낳게 하는 표현이 아닐까? 상황에 따라 ‘서양 고전음악’ ‘동양 고전음악’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다.

‘트로트’, ‘뽕짝’을 달리 ‘성인가요’라고 부른다.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지만 음악 장르를 가리키는 용어로서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성인’이라고 계층을 못 박아 놓았다. 요즘엔 젊은이 취향에 맞춘 트로트도 많이 나온다. 청소년들도 많이 즐기는 음악이 됐다.

오해와 편견은 분명하지 않은 표현에서 시작된다. 이런 표현이 많아질수록 생각은 흐려지고 행동은 엉거주춤해질 수밖에 없다. 더 객관적인 표현이 분명한 생각과 행동을 낳는다.

험악하게 말해 봐?

나막말 씨는 자칭 인터넷 논객이다. 그가 토론방에 글을 올리면 칭찬 또는 야유 댓글이 수없이 달린다. 그는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이 달려도 흐뭇해한다. 자신의 글에 관심을 많이 가져 준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나막말 씨는 인터넷에서 주목 받는 논객이 되는 비결을 안다. 분초 단위로 썰이는 그 많은 글들 중에서 자신의 글이 선택 받으려면 튀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제목부터 눈에 띄게 해야 한다. 글도 자극적으로 써야 한다. 점잖게 쓰면 누가 알아줄 것인가.

그가 즐겨 쓰는 표현들은 다음과 같다.

‘세금 폭탄’
‘혈세 낭비’
‘막가파식 행정’

정부의 세금 정책을 비판하려면 제목에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을 넣는다. 정치권을 비판하자면 ‘야합, 흥정, 술책, 농단, 어릿광대 놀음’ 등의 말을 동원한다.

경제를 이야기할 때는 ‘가격 파괴, 슈퍼 추경, 슈퍼 폭박, 국가 파산 위기, 시장 침략’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이 밖에도 그의 글을 보면 ‘혈세 낭비’(세금 낭비), ‘주가 폭락’(주가 급락), ‘금융 공황’(금융 혼란), ‘인사 태풍’ 또는 ‘인사 회오리’(대규모 인사), ‘막가파식 행정’(행정 문제점), ‘메가톤급 파장’(큰 파장) 등의 표현이 자주 보인다.

나막말 씨만 그럴까.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이런 표현이 수없이 많다. 듣는 사람도 별로 거부감을 느끼지 못한다.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 그 언어가 몸에 익숙해진 것이다. 항생제를 한 번 사용하면 다음에는 더 강한 항생제를 사용해야 한다. 언어도 마찬가지로 자극적인 표현들에 내성이 생기면 더 자극적인 표현을 구사한다. ‘투기 바람’이 ‘투기 열풍’으로 바뀌고, 다시 ‘투기 회오리’로 번졌다가 급기야 ‘투기 광풍’까지 휘몰아치는 것이다.

특히 전쟁에 비유하는 말은 섬뜩하기까지 하다. 부패와의 전쟁, 기만전술, 핵폭탄 발언, 시한폭탄, 메가톤급 파장…

언어는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한다.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는 그만큼 안정적이다. 구성원의 삶도 여유롭다.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는 불안하다. 남을 이기려는 마음으로 가득하다. 부드러운 사회로 나아가려면 용어부터 순화해야 한다. 아름다운 말을 하는데 침 뱉을 사람은 없다.

국민의 언어생활을 위한 국립국어원,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가나다 전화’

한국어 어문 규정을 비롯한 국어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근무시간 : 월~금, 9:00~18:00

전화번호 : (02) 771-9909